

광주 구간경계조정 소지역 갈등으로 번지나

민주당 광산지역위원회

첨단지역 주민 대상 투표

광산 국회의원·일부 주민

“북구 편입 반대” 성명서도 준비

반대 나올땐 경계조정 추진 차질

광주시 구간경계조정안에 따라 광산구에서 북구로 편입될 수 있는 첨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산지역위원회가 오는 8일 주민투표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구간경계조정이 지역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계조정안 사전 동의’를 묻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발송한데 이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주민 의견을 직접 묻겠다고 나서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광산지역 국회의원들과 일부 주민은 “광산구 첨단지역의 북구 편입을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투표를 통해 반대 의견이 압도적일 경우에는 광주시의 구간경계조정 절차에도 혼선을 줄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8일 오전 11시~오후 3시 첨단지역에서 민주당 광산지역위원회는 첨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광산구와 북구로 편입하는 광주시의 구간경계조정 2안(중복)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찾아가는 민심당사’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 지역위원회는 스티커투표를 통해 현장에서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주민의 뜻을 묻고, ‘민원엽서쓰기’를 통해 추가로 주민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광주지역 구간경계조정은 무엇보다도 최대 현안 지역인 광산의 민심이 나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이용빈(광산갑)·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은 첨단지역의 북구 편입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공식 입장발표를 유보하고 있다. 또 이 지역구 시의원과 구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첨단 1동은 반대 입장이 강하고 첨단2동은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으로 나뉜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진행되다보니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주민투표가 아니어서 경계조정에 대한 대표 주민의견이 될 수 없지만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광주시가 마련한 2안(중복)이 시작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지역의 북구 편입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용빈·민형배 의원과 광산구 첨단지역 주민대표위원회는 최근 반대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성명서에는 “광주시는 2018년 중단되었던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2년 전에도 북구와 광산구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경계조정안을 올 연말 시한까지 정해 놓고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광산구 첨단지역 주민들은 구색맞추기식 졸속개편인 대·중복조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광산구의 뿌리인 ‘비야동’을 근거로 하고 있는 첨단지역 주민들은 북구 주민과 정서적으로도 다르다”며 “우리는 지역 내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의



민주당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오전 대구 북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제안한다. 첨단지역 3구를 묶어 ‘(가칭)첨단지’ 신설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후 제시하는 최종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동의 여부에 서명부터 하라’는 광주시의 입장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이다”며 이 공문에 따른 회신 자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다주택 국회의원 6명중 4명 집 처분

광주·전남 국회의원 다주택자 6명 중 5명은 1채의 집을 처분했거나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4명 가운데 16명이 아직까지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4일 보도자료에서 “소속 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는 38명으로 집계됐는데 10월 31일까지 다주택이 해소된 의원은 22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이 발표한 이 지역 다주택자는 양항자(서구을)·조오섭(북구갑)·김희재(여수을)·주철현(여수갑)·이개호(담양함평영광광성)·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 등 6명이었다. 이 중 양항자와 김희재 의원을 제외하고 4명의 의원이 이날 현재 집을 처분했다.

양항자 의원은 20여년 전 부산에 거주하던 시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수원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매입했고, 분가 후 동탄에 또 다른 아파트를 남편 이름으로 매입하면서 투기 지역 2채 이상 보유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양 의원은 이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던 집이고, 2015년에 미분양아파트인 동탄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분가해 두 채가 된거라 그 집을 팔고 시부모님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주택

처분 관련 계속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희재 의원은 잠실과 용산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잠실 아파트에서 20여년 거주하다 2018년 퇴직 후 용산 아파트로 옮겨 실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아파트의 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직 3년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1가구 2주택이 아니며 집을 처분하기 위해 내놓았지만 기존 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2명이다. 당은 이들에게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154명), 광역의회의원(643명), 기초의회 의원(1598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마찬가지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내년 3월 말 이내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다. 민주당은 다주택 현황과 관련,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윤리감찰단을 통해 감찰하기로 했다. 다주택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염려가 있는 상임위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마스크 한장에...무감각해진 계절 변화



김은영의 '그림 생각'

(333) 낙엽

“...낙엽 타는 냄새가 좋은 것이 있을까?? 그 북아연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별안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이효석 작, '낙엽을 태우면서' 중>

가을이 깊어지면서 가로수 나뭇잎들이 바람과 함께 흩날린다. 가을날 잎들이 바람에 쓸리듯이 내 마음도 정처 없이 나부낀다. 이런 계절이면 학창시절 읽었던 교과서 속 시와 수필에서 떠오른 몇 구절로 문학소녀같은 감성에 젖어본다.

“음영과 운택과 색채가 빈곤해지고 초록이 전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린, 꿈을 잃은 허전한 뜰 한복판에 서서, 꿈의 곱질인 낙엽을 태우면서 상념에 잠겼던 소설가처럼 낙엽을 모아 태우면서 연기처럼 지난날을 날려 보내고 싶은 것일까.

올 한해는 단지 마스크 한 장 걸쳤을 뿐인데 후각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다. 아니다, 바이러스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살얼음 걷듯 조심조심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계절이 오가면서 주는 아름다움도 애써 외면했을 것이다. 거리에 나뭇구는 낙엽이 비로소 센지멘탈한 감각을 일깨워주기 전까지는.

영국화가 존 에버렛 밀레이(1829-1896)의 '낙엽' (1855-1856년 작)은 대학시절 교정의 느티나무 한 그루가 떨어뜨린 수북히 쌓인 낙엽을 친구들과 가득 모아 눈처럼 뿌리면서 즐거워했던 추억이 생각나게 하는 시적인 작품이다. 생명이 끝난 낙엽, 저 멀리 노을, 어렴풋한 풍경 속의 교회와 연기를 짙은 소녀들과 한 화면에 배치한 역설을 통해 아름다움의 무상함을 더욱 실감하게 한다. 라파엘전과 창립 멤버인 말레이는 라파엘로



존 에버렛 밀레이 작 '낙엽'

이후의 대가 양식의 모방을 탈피하여 진실하고 꾸밈없는 자연묘사를 지향했고, 특히 문학적 주제의 작품을 많이 남겼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박사>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눈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